

기획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3차회의

일시: 2011년 7월 18일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2011년 3차 회의가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주정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F1·총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지역주민 대변해야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 교수·위원장)



총선 앞둔 지역 정치지형 심층보도 해줬으면

김병인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



말만 요란한 투자유치 후속보도 신경 써달라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리빙 등 생활기사 실종 가정·여성 기사 보강해야

경훈 ((사)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지역 고유의 브랜드 축재 광주일보가 홍보 앞장서야

▲이철갑=지난 5월 23일 2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모이게 됐다. 시민과 독자의 시각으로 광주일보에 대한 가장 없는 의견을 부탁 드린다.

▲김병인=6월 8일 3번 '지역기업들, OLED 세계시장 이끈다' 기사를 보면 독일의 브라운호퍼 IPMS를 마치 광주에 유치하는 것처럼 기사화했다. 하지만 내용은 광주시가 브라운호퍼와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전부다. 이는 독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다. 광주시 MOU 체결 규모는 모두 2조 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진행중인 것은 10%에도 못 미치는 18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MOU 체결 홍보성 기사보다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필요하다.

6월 6일 '롯데아울렛 공영주차장 사용료 물려라' 기사를 보고 놀랐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롯데아울렛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광주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최근 사별이나 루이뷔통 등이 못매를 맞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밖에도 지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줬으면 한다.

▲이묘숙=여성과 주부의 입장에서 신문을 보면 지면 개편 때 리빙면이 사라진 것이 아쉽다. 이런 장마에서도 신문에서는 피해만 보도됐지, 장마철 대처법이나 생활의 지혜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물론 소비자 면은 있지만 꼼꼼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사가 아니라 단순히 할인 행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이 아쉽다.

7월 12일 교육면 '자기주도적 학습·여름방학 기획'은 좋은 기사였다. 그런데 7월 15일 시교육청 여름방학 보충수업 금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앞뒤 기사가 일관성이 전혀 없다. 또 이 기사는 마치 보충수업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할 안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교육청의 방침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기사화했다면 학부모들이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7월 12일 2015년 광주 U대회 관련 기사들이 아주 좋았다. 1면과 3면에 합쳐서 보도할 수 있는 기사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파트 숲'과 '문화인력 일자리' 문제도 기사와 해설이 충실히 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이런 심층보도들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한다.

▲경훈=7월 4일 문화면 '졸속 제작 자스민 광주 새로움 없었다' 기사는 공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주는 기사였다. 다음날 강연대 시장이 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실질적 도움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 자스민 광주 공연은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그런데 졸속 제작이라는 기사 제목 때문에 시민들은 공연을 보면서 졸속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자스민 광주의 졸속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자스민 광주 미래 지향적인 모습 더 담아' '자스민 광주 새로운 5·18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정도로

했다더라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진청자축제, 무안연꽃축제 등 지역 자치단체들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축제의 특징을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한다.

▲조연술=지난 2개월 동안 신문을 보면서 지면이 더 다양해지고 칼럼도 신선해져 독자위원으로 보람을 느꼈다. 특히 테마칼럼과 기고자 독자들에게 쉽게 읽히는 것 같다. 앞서도 말했지만 U대회 기사는 정말 좋았다. 동계올림픽 관광 유치에 맞춰, 2015 광주 U대회를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사였다. 또 주유 할인카드,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 MVNO(이동통신 재판매) 등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생활 기사들도 마음에 들었다.

7월 14일자 사회면 '전통문화' 기사는 사회적 문제를 잘 다룬 기사였다. 하지만 보도에 그치고 해결방안이나 정책 등에 대한 소개는 부족했다. 지자체, 보건부 등 실제 관계자를 인터뷰해 개선 대안까지 기사화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밖에도 기사를 쓸 때 단순 보도보다도 분석이나 해설을 넣어달라. 일부 기사는 보도 자료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특히 경제정책면은 더 그렇다. 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지를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조미옥=최근 광주일보가 가장 좋아진 점은 예고부터 취재, 마무리까지 기사화해서 독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독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또한 피플&라이프면이 연령층이 넓어지고, 전문성이 돋보여 눈길을 끈다.

7월 7일 '올 여름 방학에 문화 캠프 떠나요'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사였다. 그런데 7월 11~14일 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시점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점차 도전하고, 가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정보를 더 제공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장 출마 기사가 3회에 걸쳐 걸쳐 나왔다. 물론 이슈는 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일이다. 전교조와 비전교조로 나누는 것은 여론몰이일 가능성이 있다.

▲최병렬='남도의 길' 시리즈에 관심이 간다. 남도의 길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들도 함께 보도해줘 사립들도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서철과 겹쳐서 독자가 한 번씩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꼭 유명한 길만 아니라 더 옛 고을마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 있다면 취재해 주길 바란다.

세계 문화 도시를 소개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가 문화 수도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내세울만한 브랜드는 없다. 앞으로 문화전당과 관련해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소개하고 무엇을 만들지 대안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철갑=전체적으로 1면 타이틀이 너무 좋아졌다. 1면과 3면 연속기사도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만든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장)

U대회 관련기사 돋보여

다양한 지면·칼럼도 신선



조미옥 (나주 봉황중 교사)

테마칼럼·피플&라이프

연령층 넓어지고 전문성 눈길



최병렬 (광주지체장애인협 사무처장)

세계 문화도시 소개 적절

문화전당 대안 제시 등 기대



확으로 심층보도를 자주 했으면 한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다. 곡성, 구례 등 국회의원 선거와 진보정당, 합당, 연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광주의 분위기가 전체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일보가 심층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정말 좋은 사진 기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일부 사진들은 지면 편집이 잘못 돼 독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들의 배치에 대한 편집을 신경 써줬으면 한다. 특히 경제면은 경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사진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정리=김경민기자 kki@-/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학동회수산시장', '향기공예방', '집안꾸미기리브콩', '토마토(두암점)', '편백나무구들장침대', '코리아댄스스포츠', '초절수사위기', '대한요양병원', '전라도탕', '우현식육식당', '(주)장수돌침대', 'LC타워부동산컨설팅', '(주)금오모터스', '빅톡코리아전자담배', '고향국밥', '포베이', '올리브영', '윤영식당', '영신아구찜 곱창구이', '제일식당', '탑 공간창조기업', '기담철학원', '소랑 소랑 각화점', '드림텔레콤', '행운근로자대기소', and '녹다'.